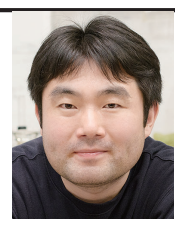
늦어도 괜찮다는 믿음

교육의창



강경필
광주교육연구소 이사

AI디지털 교과서가 2025년 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우려가 많다. AI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채 10년도 되지 않는다. 태블릿 PC가 보급된 것도 10년이 조금 넘었다. 교과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어 보급하는 일은 훨씬 많이 검토하고 더디게 이루어져도 충분하다. 교과서의 변화는 미래세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장 변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불안을 지우고 이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도 충분하다. 지금 AI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도 책으로 배웠다. 아니 AI도 책으로 배웠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지켜 보며 충격에 빠진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2022년에 등장해 일반인들이 직접 인공지능을 체험하면서 놀라움은 더욱 확대 되었다. 이후로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말로도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된 발전이 폭발하고 있다.

기술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일상까지 확대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면 교육도 변화가 뒤따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짧게는 2년 정도 길게는 8년 사이에 코딩교육 열풍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까지 급속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불안을 파는 상품에 불과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훅 날아갈 버릴 헛 껍데기 같은. 인터넷이 처음 등장하고,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을 서둘러 따야 할 것처럼 굴었던 것과 같은 소동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은 세상을 바꾸었지만 컴퓨터 교육과 인터넷 교육 스마트폰 교육은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남루한 교육이었을 뿐이다. 둘 사이는 구별되어야 한다. 함부로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의 얄팍함과 한번 만든 시스템은 쉽게 변화대응을 못하는 경직성이 생기는데, 최신 기술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교육체계화를 배반한다. 스마트폰은 끊임 없이 업데이트 되지만 스마트폰 교재는 그 업데이트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AI디지털 교과서는 막대한 예산만 쓰고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는 헤프닝으로 남을 것이다. 과거 학교마다 보급된 OHP나 실물화상기 등이 이미 거쳐간 운명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 다만 교과서의 지위를 확보하면 AI디지털 교과서는 과거에 도입된 교육 보조재와는 비교도 안되는 단위의 문제를 만들 것이다. 오래 지속되지는 못 하겠지만 그 폐허의 상흔이 커질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하는데 학교는 혹은 교과서는 변화하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다. 학교는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변화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한다. 지금 음악교과서에는 뉴진스나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실리지 않는다. 진은숙의 음악이나 한스 짐머의 음악도 등장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의식이 없다. 문학교과서 역시 마찬가지다. 현대문학이라고 30년전 문학이 가장 최근의 문학작품이다. 한국어가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교과서는 더디게 변화한다.

교과서 변화가 늦다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서 안에 새롭게 진행되는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수록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뒤쳐짐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 뒤쳐짐 대신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불안을 매개로 하지 않고 안정을 추구한다. 그 안정이 학습에 미치는 긍정성이 크다. 시는 계속해서 기존의 언어 바깥으로 나아가려 시도하고, 그 성공사례들이 다시 굳어진 언어를 만든다. 학교에서는 그 굳어진 언어를 배운다. 당대에는 새로웠을 지금은 당연한 옛글을 읽고 쓰는 것은 여전히 가치있다.

학교란 시스템이 변화에 더딘 것을 용인하는 대신 변화는 다른 방식으로 추동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 경험을 학교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믿는 고리타분한 믿음을 깨고, 학교 안과 밖에서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는 작아지고, 학생의 시간적 여유는 더 많아지는 방식으로의 변화.

학생들은 이미 혹은 곧 디지털도 AI도 아무런 교과서나 교과과정 없이 교육부장관 보다 더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주유소 기름값이 7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ℓ)당 1638.3원으로 직전 주 대비 4.3원 상승했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시스

서석대

양곡법과 식량안보

지난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 등 중부지방에 폭설이 내렸다. 117년 만의 기록적인 11월 폭설이라고 한다. 기후위기가 눈 앞에 닥친 현실이란 사실에 다시한번 눈을 뜨게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탄소 중립 실현,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도 중요하지만, 식량안보는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시대의 안보는 총과 칼이 아니다. 우리의 주요 먹을거리를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안보의 본질이다. 식량 주권이 무너진다면, 외국산 먹을거리는 총·칼 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된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사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주식은 쌀이다. 쌀 소비가 매년 줄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은 '밥심'이다. 하루 한끼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이다. 기후재해로 농산물의 생산 변동이 커지면서 쌀 생산량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금은 소비가 줄어 남아돌지만, 기후변화가 심화되면 쌀 수급 상황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대규모 흉작이 발생하고 쌀 마저 외국에 종속된다면, 지금의 풍요는 한 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과 적절한 가격, 그리고 농민들의 헌신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게 핵심이다. 식량 수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가격 급·등락을 막는 법이다. 쌀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공급과잉 고착화로 쌀값은 계속 내려가고 막대한 재정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 양곡법 찬성 토론에서 '농사짓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쌀의 기대소득을 낮춰 쌀 농가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내년 부터는 농사를 안정적으로 준비할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농촌 1호 영업사원'이 돼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선욱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社 說

불투명한 광주 인공지능 포기 안된다

내년 예산 확보 못해 좌초 위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전환 실증밸리(AI 2단계)사업'이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원 약속에 따른 사업이 주무부처와의 입장차로 내년 예산조차 확보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2단계가 광주의 기술혁신과 산업 다각화를 촉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첨단 기술개발의 기회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인공지능은 국가데이터센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1단계와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 플랫폼과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는 2단계로 구분돼 추진된다. 특히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1단계는 완성 단계에 있어 곧바로 2단계를 추진해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예산 축소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957억원이 불투명해졌다. 기재부는 지난 2018년 인공지능 사업이 1·2단계로 구분되기 전 예산이 1조원 가량으로 책정됐으며, 1단계에서 4000억원이 반영됐다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다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 첨단 산업마저 마냥 허리띠를 졸라 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광주는 전략적으로 인공지능을 선택해 선도적으로 투자하면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실증 등을 위한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을 갖췄다. 이런 상황에서 2단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기업과의 '속도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예산 축소 요구에 따라 한차례 감액했는데도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삭감을 요구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 1·2단계 사업은 이미 광주만의 사업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인공지능 사업은 특성상 기회를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삭감을 요구하는 것도 지역홀대에 다름 아니다. 아낄 곳은 확실히 아껴야 하지만, 써야 할 곳이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보완과 개선으로 이제 2년 후 준비해야

광주비엔날레 1일 대장정 마쳐

지난 9월 7일 시작된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86일의 대장정을 마치고 1일 막을 내렸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 을 주제로 열린 올해 비엔날레는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남구 양림동으로 전시 공간을 넓혔고 다양한 국가의 동시대 미술을 접할 수 있는 파빌리온도 선보였다. '광주의 정신과 지역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등은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번 비엔날레는 30개국 작가 72명이 참여해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판소리'라는 타이틀 아래 동시대 공간을 소리로 탐구했다. 특히 5개 전시실이 '소리'라는 테마로 연결돼 관람객들은 지속가능한 공간과 미래를 사유할 수 있었고 주제인 판소리가 우리의 정서와는 다른 결을 보여준 것은 '옥의 티'로 남는다. 반면 '공간'을 주제로 기후 변화와 경제 위기, 이주 문제 등 갈등을 시각화하고, 이를 접하는 관람객이 현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외신들의 호평도 이어졌다고 한다. 미국 뉴욕 더 선지, 스페인 유력 매체 유로파프레스, 이탈리아 종합지 ADN 크로노스, 대만 유력 일간지 연합보, 독일 월스트리트 온라인 등이 전시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했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 중국 신화 통신, 아시아 총괄 통신사 니케이 아시아 등과 현대 미술 전문지들도 현장을 방문해 취재하고 보도했다. 각국 내빈과 문화예술계 인사, 연예계 스타들도 연이어 전시장을 찾았다. 7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도 높아 종합 관람 만족도가 2000년 이래 역대 최고치인 81.7%로 집계됐다.

현대 미술의 트렌드를 소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비엔날레가 최선은 아니다. 무엇보다 비엔날레 기간 지역 작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이번 비엔날레의 아쉬움이었다. 광주만의 특성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올해로 30년째. 이번 비엔날레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완과 개선을 통해 이제 2년 후를 준비해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